

한국원자력학회 제31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정 동 옥
소속	중앙대학교
직위	교 수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원자력공학	박사	1992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2012.4 ~ 현재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	교육 및 연구
2010.1 ~ 2012. 1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단장	국가 중장기 원자력 R&D 사업총괄
2004.4 ~ 2007. 4	OECD/ 원자력에너지기구	제4세대원자로개발 국제포럼 Technical Coordinator	제4세대원자로개발 국제공동연구관리
1993.5 ~ 2003. 7	한전 전력연구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신형원전개발센터/팀장	APR1400 안전분석, 인허가 국제협력, 사업총괄 등

□ 활동 내역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0.9~ 현재	학회 평의원	학회 주요활동 심의
2015.9~ 현재	학술이사(~2016.8), 편집이사(2016.9~)	학술활동 및 학술지발행 담당
2011.9~2017.8	NET 편집위원	학회 학술지(NET) 편집

(예 : 임원, 평의원, 연구부회장, 편집위원, 좌장 등의 활동)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5.1~2017.9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에너지환경 연구투자심의
2012.11~2016.4	한국원자력안전재단/비상임 이사	원자력안전재단 운영심의
2016.9~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획평가위원	에너지분야 정책연구기획평가

(예 : 위원회, 이사회, 자문활동, 포럼 등의 활동)

존경하는 원자력학회 회원 여러분, 제31대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정동욱 회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원자력 연구, 산업, 학계에 몸담아 학문 발전과 국가 사회에 공헌해온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보람, 희망이 꺾히고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0년 역사를 자부하는 학회 역시도 우리 사회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과 필요성이 부정되는 시류에서 그 설 자리를 찾는데 엄혹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이어진 신고리5,6호기 건설 공론화 등 쓰나미처럼 원자력계를 덮친 탈원전의 와중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로 원자력계가 그나마 존재가치를 지키고 2018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모색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본 입후보자는 작년 3월29일, 최초의 학회 성명인 “대안 없는 탈핵주장에 대한 원자력학회 입장” 발표, 12월18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등, 중요한 시기에 학회와 함께하며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학회는 학문 집단을 대표하고 산학연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원자력 산업과 연구가 발전함에 이러한 학회 본연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앞날을 내다 볼 때 위축되는 산업과 연구활동의 상황 속에서 학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하여야 할 지는 우리 모두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보면 학회의 역할은 어쩌면 지난 시절 보다 더 중요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원자력 산업과 연구가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에 본 입후보자는 향후 학회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체계를 볼 때 민간 차원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바뀌어 민간 차원의 원자력정책 제안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학회가 원자력 정책의 민간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의 역할에 맞는 원자력 정보 알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대중과 전문가 간의 소통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고유 사명에 따라 소통의 방식과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입장에서는 전문정보의 일반대중 전달을 촉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전문정보의 순화와 전파 등, 학회의 역할에 부합하는 정보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학회 회원 여러분의 참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학회의 존재 기반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난 한해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로 학회의 존재 가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허나 5천여 학회 회원의 활성화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 학회 회원 여러분, 비록 부족한 자질이나마 그간 원자력 관련 산업, 연구, 교육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를 통해 원자력의 비전과 자긍심을 다시 찾는데 미력을 더하고자 숙고 끝에 금번 수석부회장 후보에 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원자력과 학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마지 않으며, 이만 입후보 소견을 드립니다.

입후보자 정동욱 배상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5.

성명 : 정 동 욱 정동욱 (서명)